



2025년 제106회 전국체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의 빛나는 성과
태권도 · 불링 등에서 금메달 3개 포함 총 9개 메달 획득, 종합 4위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동향

Vol. 96



오름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um@gmail.com
www.orum.co.id indocity1991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2026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인니 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10% 인상 요구



▲2023년 11월 28일, 자카르타 곳곳에서 모인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5%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및 노동 연맹 연합(KSP-PB)은 2026년도 최저임금을 8.5~10%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설정한 6.5%

인상률보다 높은 수치다. 노동당 대표 사이드 이크발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결정 제168/2023호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및 특정 지수를

고려한 공식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개월간 물가상승률 3~3.26% 사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5.2%를 단순 합산하면 8.46%로, 이를 반올림하면 8.5% 인상은 정당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빈곤율 및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발표한 점을 들어 공식에 사용되는 특정 지수를 기존 0.9%에서 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태평양 인력부 장관은 지난 13일,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개념을 수립 중이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주 단위 최저임금 결정은 11월 1일에,

시·군 단위는 12월 1일에 정해진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며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정부가 기존에 사용한 공식에 따라 인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식은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상대적으로 낮은 지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부령(PP) 제51/2023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그러나 이 정부령은 헌법재판소(MK) 판결로 무효화됐다. 경영자협회(Apindo) 노동위원회 보브 아잠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산정 공식이 네 차례나 바뀌었다”며 “최저임금은 신규 근로자에 대한 기준선 역할만 하고, 노사 간 임금 협상 여지를 남

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올해 임금 인상률을 6.5%로 정했을 때, 경영자협회는 이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인도네시아 제품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경영자협회 신포 캄다니 회장은 노동 생산성, 산업 경쟁력, 국가 경제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부가 해당 공식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었다. 이로 인해 대량 해고 발생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섬유산업, ‘사양산업’ 인식 깨고 올해 5.39% 성장

프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인도네시아의 섬유·섬유 제품(TPT) 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을 뒤집으며, 건실하고 효율적이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아구스 구미왕 까르파사스미파 산업부 장관이 26일 밝혔다. 아구스 장관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2025년 3분기까지 5.3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1%를 기여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세계 5대 효율적 섬유 생산국 중 하나로, 인도·중국·튀르키예보다 효율성이 높고 베트남·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수

준”이라고 설명했다. 아구스 장관에 따르면 방적 비용은 1kg당 2.71달러로 인도·중국보다 저렴하고 베트남과 유사하다. 직조 비용은 1m당 8.84달러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가공(fabric finishing) 비용은 1m당 1.16달러로 역내 주요 경쟁국보다 낮다. 풍부한 원자재, 유연한 산업 정책, 숙련된 인력의 결합이 인도네시아를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글로벌 섬유 파트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구스 장관은 “이 수치들은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탄탄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지정학적 재편,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구조화의 시대에도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여전히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 장관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혁신·제조·지속가능 성장의 중심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구조개혁·투자 간소화 추진 정부는 투자 절차 단순화와 산업 신뢰 강화를 위해 각종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또 온라인 단일허가시스템을 간소화해 인허가 절차를 빠르고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기계·설비 현대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낡은 장비를 에너지 효율형 첨단기술로 교체하고, 노동집약 산업 대상 신용 지원 확대, 자본재 수입 우선권 부여, 연구개발 투자기업 세제 혜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장관은 “정부는 산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섬유산업이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2025년 제106회 전국체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의 빛나는 성과

태권도·볼링 등에서 금메달 3개 포함 총 9개 메달 획득, 종합 4위



▲2025년 9월 26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출정식(사진=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선수단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해외 동포 체육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대회에서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 종목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라는 성과를 거두며 재외 한인 청년들의 실력과 열정을 입증했다. 특히 태권도 금메달을 차지한 김아리, 김인다 선수는 경기 내내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투지를 보여주며 단연 돋보였다.

볼링 종목에서는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정태민 선수가 남자 마스터즈 부문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인도네시아 팀에 세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마지막 경기의 압도적인 집중력과 기술은 현장을 찾은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신규 태 선수단 단장은 “이번 대회에서 재외동포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투혼은 메달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선수들의 헌

신, 그리고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체전은 단순한 경기 참여를 넘어, 전 세계 재외동포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김태화 회장은 10월 23일 폐막식에서 “선수단 모두 무사히 체전을 마친 것만으로도 큰 성

과”라며 “비록 이번 대회에서는 3위권 진입에 아쉽게 실패했지만, 내년 제주에서 열릴 제107회 전국체전에서는 더욱 철저히 준비해 다시 단상에 오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오는 2025년 12월 17일, 자카르타 내 호텔에서 체전 성과를 공유하고 그동안 응원과 성원을 보내준 교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자카르타 경제신문]

*금메달(3):

△태권도/김아리 △태권도/김인다
△볼링 남자 마스터즈/정태민

*은메달(3):

△태권도/고예필 △태권도/김하진
△태권도/이연희

*동메달(3):

△테니스 남자 복식/장우연, 김영민
△탁구 남자 단식/김성한
△축구/재인도네시아 축구팀

인도네시아

“소비진작 위해 부가가치세 다시 내리는 것 검토 중”

인도네시아 푸르바야 유디 재무장관이 소비진작을 위해 현행 11%인 부가가치세(PPN)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15일 현지 매체 안타라뉴스 등에 따르면 푸르바야 재무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 경제 상황과 국가예산(APBN) 집행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내릴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 시행 여부를 경제 성장률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제7호 조세규제조화법(HPP법)에 따라 기존 10%에서 11%로 인상됐다. 또 2025년 초부터는 세율을 12%로 올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24년 말 이 조항을 일부 조정해 고가품에 대해서만



▲9월 9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재무장관 이·취임식에서 스리 물리야니 인드라와티(오른쪽) 전 재무장관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왼쪽) 신임 재무장관에게 직무를 이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제공.

12%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해 일부만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12%가 적용되는 품목은 2023년 재무부 규정 제15호에 명시된 고급 재에 한정된다. 여기에는 300억 루피아 이상의 △고가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열기구 △동력 장치가 없는 항공기 △충탄 및 일부 총기류(국가 목적 제외) 역시 고급품으로 분류돼 12% 세율이 적용된다.

기상청, 인도네시아 남부 지역 폭염 경고

인도네시아 기상청(BMKG)은 인도네시아 남부 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극심한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장시간의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3일~14일 자카르타, 수라바야, 동부자바, 팔렘방, 남수마트라, 스마랑, 중부자바, 발리 덴빠사르 등 주요 도시의 낮 최고 기온이 최고 섭씨 35도를 기록했다. 이 중 가장 더운 지역은 반똌 남 땅그랑으로 섭씨 37도를 넘었고 자카르타의 낮 기온은 섭씨



▲양산을 쓴 자카르타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32~35도에 달했다. 자카르타의 이맘 때 평균 기온보다 약 3도 높았는데 대기 질 악화까지 겹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속되는 기온 상승은 구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태양 복사가 직접 지표면에 도달하고, 건기와 우기의 전환기인 ‘뽀자르바’(pancaroba) 특성 상 기온과 날씨 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도시 지역에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열을 흡수 방출하며, 도시 배출가스가 열을 가둬 폭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 계획과 녹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도네시아 대학의 환경건강 연구원 부디 하리안토는 최근의 폭염은 인체가 외부 열에 견

딜 수 있는 섭씨 15~32도 수준을 넘었다고 경고하며, 야외 근로자 같은 직사광선에 노출된 사람들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보다 포괄적인 더위 경보 시스템을 당국에 개발해줄 것을 촉구했다. 기상청은 이같은 극심한 더위가 12월 또는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자외선이 가장 강한 낮 시간 동안에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 윤 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삼성물산



‘트럼프발 관세’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뿐 아니라 여성 일자리도 위협



▲지난달 6일 방글라데시 다카 외곽 동기에 위치한 의류 공장에서 의류 노동자들이 재봉 작업대에서 옷을 재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저비용 대량생산 전략을 취해온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류 산업은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아 향후 여성 일자리가 위축돼 여성의 사회 참여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방글라데시가 대미 관세율을 20%로 낮췄지만, 의류 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오히려 경쟁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일 방글라데시에 20% 상호관세율을 확정했다. 당

초 예고한 35%에서 15%포인트 낮아졌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가 관세를 인하를 위해 미국산 밀과 보잉 항공기 구매를 약속한 결과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의 대미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20%인 83억7000달러(약 11조5800억원)로 단일 국가로는 1위를 기록했다.

“외교적 승리”라는 무함마드 유누스 과도 정부 최고 고문(총리 격)의 자축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산업의 주축인 의류 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마흐무드 하산 칸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 및 수출 협회 회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율이 낮아진 듯 보이지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방글라데시산 의류에는 총 36.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기존에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를 적용받아 평균 15~16.5% 수준의 관세가 매겨졌지만, 여기에 최근 20%의 상호관세가 추가되면서 총 관세율이 36.5%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주요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는 향후 기존 MFN 관세에 상호관세를 더해 각각 약 27.6%과 3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의류 산업 의존도가 높은 방글라데시로서는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방글라데시가 수출한 의류는 전체 수출액인 482억달러(약 66조5160억원) 중 84.6% 비중을 차지했다. 니트웨어 및 점퍼를 생산하는 윈터그룹의 압둘 와두드 대표는 SCMP에 “미국 구매자들은 우리 의류를 더 싸게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피해가 저소득층 여성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학술 플랫폼 VoxDev의 수재나 하레스 수석 연구원 겸 정책 고문은 “의류업은 방글라데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 확대, 조혼 연기 등 사회 진보의 원동력이었다”며 “관세 여파가 여성의 자립, 교육과 사회 기회 확대 등 수십년에 걸친 진전을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의류 산업 노동자 약 500만명 중 55.6%가 여성이다.

챗GPT ‘즉시 결제’ 등장... 이커머스가 요동친다

검색 기반 온라인쇼핑 생태계에 新판매루트 선택

오픈AI는 최근 챗지피티(ChatGPT) 내에서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기능 ‘인스턴트 체크아웃(Instant Checkout)’을 미국 시장에 도입했다.

스트라이프(Stripe)와 공동 개발한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Agentic Commerce Protocol)을 기반으로 구현된 이번 기능은 현재는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엡시에서 단일 아이템 구매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다중 상품 장바구니 기능 추가 및 쇼티파이(Shopify) 등 다른 플랫폼 확대가 예고되어 있다.



▲챗지피티가 즉시결제 시스템을 선보이며 이커머스 시장에 참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오픈AI 측은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챗지피티 내에서 상품 탐색부터 결제까지 흐름을 끊기지 않고 수행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별도 화면이동 없이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판매 이후 배송, 반품 등 후속 업무는 여전히 판매자가 직접 처리하며, 오픈AI는 거래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과거 소비자는 챗지피티나 유사 대화형 AI를 통해 제품 추천이나 비교 정보를 얻은 뒤, 별도의 쇼핑몰 웹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하는 흐름을 거쳤다. 인스턴트 체크아웃은 이를 한 플랫폼 내에서 통합해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감소시킨다.

기존 전자상거래 생태계는 키워드 기반 검색 구조에 익숙하다. 제작사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SEO) 전략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AI

기반 플랫폼이 사용자의 자연어 요청을 직접 해석하고 응답하면서, 키워드 중심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광고·노출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많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챗지피티의 인스턴트 체크아웃은 미국 엡시에만 도입되었지만, 조만간 100만 명 이상의 쇼피파이 판매자들에게도 확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중소형 사업자들이 AI 기반 쇼핑 생태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열린다. 또한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가 오픈소스로 공개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나 개발자가 해당 프로토콜을 구현해 AI 쇼핑 채널을 확장할 여지도 있다.

챗지피티의 인스턴트 체크아웃과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은 AI가 이커머스 시장의 실제 행위자로 진화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이 변화는 검색 중심의 커머스 구조를 흔들 수 있으며, 많은 온라인 판매자 가운데 누가 AI 플랫폼에 더 잘 노출되느냐가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될 것이다. 다만 소비자 신뢰 확보, 브랜드 통제력 유지, 법적 책임 구조 등의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베트남의 섬유산업은 엄청난 기회에



▲ Vu Duc Giang 씨 - 베트남 섬유 및 의류 협회(VITAS) 회장 - 사진: AH

베트남은 현재 섬유 및 의류 수출에서 세계 3위로 올라섰으며, 단순히 값싼 공산품을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섰다.

섬유산업은 더 이상 값싼 가공품만을 만드는 단계를 지나쳤다.

10월 9일, 아시아상업주식은행(ACB)이 주최한 섬유 및 의류 산업과 공급망 컨퍼런스에서 베트남 섬유 및 의류 협회(VITAS) 회장인 Vu Duc Giang 씨는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이 엄청난 기회에 직면해 있지만, 끊임 없이 변화하는 세계 무역의 맥락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1~9월 섬유 및 의류 수출 총액은 347억 5천만 달러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으며, 침체기를 겪은 후 회복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재 수입액은 16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원단만 110억 달러를 차지한다. 이는 베트남이 여전히 해외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값싼 하청 제품만 생산하던 시대를 극복하고 섬유 및 의류 수출에서 세계 3위로 도약했다. 현재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제품은 16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138개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2027년까지 22개 협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트남 섬유 및 의류는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굳혔다. 이전에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 중동 시장, 특히 무슬림 국가만 해도 섬유 및 의류 산업에서 2024년 10억 달러, 2025년 첫 7개월 동안 7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베트남의 섬유 제품이 대중적인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과 디자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고급 세그먼트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류 비용의 과제 호치민시 물류협회 회장인 당민 프엉 여사는 베트남 섬유 및 의류 기업들이 현재 엄청난 기회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냐는 공급망과 물류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중국, 방글라데시 등 다른 국가의 주문을 베트남으로 옮길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과제는 여전히 비용이다. 베트남의 물류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높은 비용은 주문량이



김재훈의 세무상식

“재무보고에 관한 정부령”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 43호 / 2025년 (PP No.43 Tahun 2025)

정부는 재무 보고에 관한 정부령 제 43/2025 호를 지난 9월 19일 공포하였다. 세무사항은 재무부장관령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령은 기존에 여러 규정에 분산되어 있던 재무 보고 조항들을 요약하고 통합하는 것으로서 고려 사항 부분에는

“금융 부문의 발전 및 강화에 관한 법률 제 43/2023호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무 보고에 관한 정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보고 의무 간소화
- 2) 데이터 품질 향상 및 신뢰성
- 3) 재무 보고서 제출을 위한 단일 플랫폼(재무 보고 공동 플랫폼, PBPB) 구축

요약하자면, 정부령 제 43/2025 호는 4가지 주요 축을 규제하고 있는데 PBPB의 원스톱 서비스 구현, 독립적인 재무 보고 기준의 수립/확인, 유관 기관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그리고 지원 생태계 구축이라 하겠다. 세무 실무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는 국제형 및 기타 당국에서 사용하는 재무 데이터를 더욱 균일하고 추적 가능하며 세무 정보와

의 매칭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번 규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직접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검증 및 일관성

PBPB를 통해 제출된 재무 보고서는 재무부처, 기관 및/또는 당국의 업무 및 기능에 더욱 표준화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는 세무 데이터 조정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 측정 및 공시가 확립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독립적인 재무보고 기준의 확립
작성된 재무 보고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이번 정부령에 재무 보고기준위원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재무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의무
작성자의 준수 및 역량으로 이번 정부령은 보고서가 유능하고 정확한 당사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회계팀 또는 보고서 작성자가 적절한 자격증/역량을 보유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김재훈 대표

탄탄한 지원 생태계의 확보

이번 정부령은 더 나은 재무 보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원과 감독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정부령 43/2025호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의 위험을 줄이며,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감독의 정확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l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청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많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는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수익 감소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당민 프엉 씨는 강조했다.

ACB 은행 금융시장 이사인 후인 주이 상(Huynh Duy Sang) 씨는 섬유 및 물류 산업은 주로 외화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이 상승하면 베트남 상품의 가

격이 저렴해지고 수출이 용이해질 것이다.

환율과 관련하여, 연초 이후 베트남 동(VND)은 약 3~3.5% 하락했다. 그러나 예측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달러 금리를 계속 인하하여 환율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Duy Sang 씨는 “연준은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사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예방적 해결책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단언했다.

VIETNAM.VN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PT. ACE ENERGY SERVICE

Electical - Mechanical - IUJPTL (Solar Plant) - O&M

인도네시아 태양광 선두주자!

인도네시아에 청정에너지를 담습니다!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PLN보다 저렴한 태양광 사용전력 비용만 납부하세요.



설치비 X, PLN전기로 보다 저렴한 태양광 전기료 납부



운영비 X, ACE와 글로벌 투자사가 20-25년 보증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 제고

ACE ENERGY SERVICE는 On-Grid / Off-Grid 태양광 Total PV 시스템을 제공 미래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EPC/O&M 회사입니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 ACE와 함께 2025년 귀사의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 태양광 사업 제안에서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T. Hwa Seung Indonesia_Jepara_4.1MWp>

<PT. Parkland World 3_Jepara_2.4MWp>



<PT. Handal Sukses Karya_Jepara_1.1MWp>

<세아 상역 인도네시아_2MWp>

※ PT. Shinsung Grand Indonesia, PT. Kanindo makmur jaya, PT. Pung Kook Indonesia One 외 다수

인도네시아 편직물 시장 동향

견고한 내수와 정부 주도의 산업 현대화 전략을 바탕으로 장기 성장 전망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 접근 필요



▲〈Making Indonesia 4.0. 섬유 및 의류산업 발전계획〉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기술연구개발기구(BPP)]

상품명 및 HS CODE

HS CODE 600622는 면으로된 편물이나 코비늘 뜨개질 원단 중 염색된 품목을 뜻한다. 해당 품목은 염색 과정을 거쳐 의류 제조의 최종 단계에 사용되는 다양한 면 소재의 편직 원단으로서 티셔츠, 캐주얼웨어, 스포츠웨어, 아동복 등 일상적인 의류 및 의복 제조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시장동향 및 규모

HS CODE 600622를 포함하는 인도네시아의 편직물 시장은 최근 연간 약 30억 달러의 규모를 유지해오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편직물 시장은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연 평균 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인도네시아의 편직물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며 가계 소비가 수요의 78.5%로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시장 공급은 주로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체 시장 규모의 29.5%를 차지한다. 이외에

도 시장의 수익성은 생산가치의 35.9%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편직물 시장은 크게 견고한 내수 소비와 정부 주도의 산업 현대화 전략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① 강력한 내수 소비

인도네시아의 약 2억 8000만 명 규모의 인구는 시장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기반이다. 빠른 도시화로 인해 많은 인구가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가치 분 소득 증가에 따라 의류 및 라이프 스타일 제품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인구의 약 87%는 이슬람교로서 이슬람 패션(Modest Fashion)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통기성, 흡습성 등 기능성 원단에 대한 수요 또한 동반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요 일간지인 KOMPAS에 따르면, 인도네시

아는 생산 측면에서 이슬람 패션 부문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 규모가 연간 300조 루피아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외,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은 국내외 브랜드에 새로운 판매 채널을 제공하며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도네시아의 편직물 산업 생산량의 약 70%가 내수에서 흡수되는 구조를 형성하며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② 정부 주도 전략 : Making Indonesia 4.0

인도네시아 정부의 Making Indonesia 4.0 전략은 섬유 및 의류 산업을 5대 핵심 우선 산업으로 지정하고 현대화 및 기술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섬유 산업의 연간 5~6% 성장을 목표로 하며 자동화·효율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스트림 단계의 생산 능력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글로벌 마켓 니즈 충족,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 타 국으로부터의 저가 제품 대량 유입으로 인해 현지 생산 가동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공장은 폐쇄되는 등 가격 중심의 저가 제품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다. 수입동향 및 국가별 수입규모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HS Code 600622

에 해당하는 제품의 수입액은 2021년 3억5686만 달러로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수요 회복과 함께 50% 증가했다. 2022년도 또한 안정세를 보였으나 2023년 28.3% 감소한 2억 5346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4년 전년도 감소율과 유사한 28.4%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했다. 이는 2023년 섬유를 포함한 다수 품목에 수입 규제를 강화한 정부가 2024년

셔츠, 캐주얼웨어 등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저지 니트를 전체 제조 편직물의 약 40% 이상으로 주력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현지 제조 및 유통사는 아래와 같다.

유통구조

HS Code 600622에 해당하는 편직물은 무역부의 규정(No.22/M-DAG/PER/3/2016)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규정의 핵심 원칙은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유통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현지에 등록돼 있는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외국기업은 현지에 직접 판매할 수 없으며 현지 에이전트 및 유통업체와 같은 수입자 역

<2021~2024년 편직물 (HS Code 600622) 수입규모>

순위	국가명	수입액(단위: US\$천)				비중(%)	증감률
		2021	2022	2023	2024	2024	23/24
	전세계	356,869	353,339	253,462	325,501	100.0	28.4
1	중국	120,271	139,327	93,642	127,807	39.3	36.5
2	베트남	72,623	67,127	66,290	78,185	24.0	17.9
3	한국	88,918	72,275	48,502	60,106	18.5	23.9
4	홍콩	61,816	55,157	39,518	48,828	15.0	23.6
5	대만	6,933	8,856	2,045	4,349	1.3	112.7
6	캄보디아	146	169	1,240	2,135	0.7	72.1
7	태국	1,985	3,653	530	1,206	0.4	127.6
8	미국	1,765	52	5	649	0.2	11,953.2
9	싱가포르	1	359	403	535	0.2	32.6
10	인도	157	3,806	160	522	0.2	227.1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무역부 규정 제8호를 발표함에 따라 수입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주요 항만에서 묶여있던 대규모 컨테이너 적체 문제가 해결돼 통계상 반등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의 전세계 편직물 수입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4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에서 24.0%를 수입하고 있으며, 뒤이어 한국(18.5%), 홍콩 (15%), 대만(1.3%), 캄보디아(0.7%) 순으로 수입되고 있다.

경쟁동향

인도네시아의 편직물 산업은 티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관세율 및 인증

HS Code 600622에 해당하는 편직물은 2025년 무역부 장관령 제 16호 및 제 17호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입 승인서 (Persetujuan Impor PI) : 수입자가 NIB(사업자 등록 번호) 기반 발급 받는 수입 허가증으로서 물품을 합법적으로 반입하기 위한 필수 요건
- 2.검증기관 검사보고서(LS, Laporan Surveyor) : 정부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선적 전 검사보고서로서 신고된 규격 및 규정 준수여부가



PT. JASON LOGISTIC INDONESIA

글로벌 물류 전문 파트너

Your Professional Global Logistics Partner

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하는 물류 파트너



Air Cargo



Sea Cargo



Warehouse



Customer Service

JASON 지사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진, 샤이먼,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만/한국

Ruko Gading Kirana Blok C10 No.10, Kel. Kelapa Gading,
Kec.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p: 021-45855919 | Email : cs.team@jli.kr
한국담당자: 박치성 +62 821 1210 0051 | 현지담당자: HENDRA +62 898 1142 2911

동남아 여행 경고등...

[한인포스트]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인니 정부, 50만 명의 숙련 노동자 양성 프로그램에 8조 루피아 예산 배정



▲지난 5월 22일 브카시에서 열린 취업 박람회장엔 수천 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몰렸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직업훈련 제도 이니셔티브에 따라 수행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약 8조 루피아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용접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50만 명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새로 구성된 정부전략프로그램 가속화 태스크포스(이하 P2SP 태스크포스)의 목표 중 하나인 기술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모두 습득할 수 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도 경제

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이 태스크포스의 목적이 정부의 전략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제때 완료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P2SP 태스크포스는 세 개의 작업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전략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출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두 번째 그룹은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세 번째 그룹은 필요한 규정을 준비한다. 태스크포스의 목표 프로그램에는 8+4+5 경제 패키지, 크리스마스과 새해 할인을 포함하는 연말 경기 부양 프로그램, 지속적인 재정 인센티브, 비관세 장벽 및 상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병목현상해소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사 등 의료 전문 인력 2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과학기술부가 졸업 후 다양한 지역에 배치되는 의료 장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일 메라뽀띠 내각 1주년을 기념하는 전체 회의에서 뿌라보위 대통령은 정부가 전국에 7천개의 통합 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유럽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뿌라보위는 “그들은 매년 100만 명의 인력을 요청하고 있다”며, 유럽의 호텔에는 직원이 부족하고 레스토랑은 꽉차고 사람

들은 웨이터로 일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친절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뿌라보위는 이 인력 개발의 핵심 요소는 언어 교육이며, 특히 유럽으로 향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영어 교육과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간호사와 노인 돌봄 인력 파견 요청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는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뿌라보위의 장기 비전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초 교육을 위한 공공학교(Sekolah Rakyat), 중간 수준 학생들을 위한 통합 학교, 그리고 우수 학생을 위한 엘리트 학교로 구성된 3단계 교육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스마트공장 구축 中企 절반 “AI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돼”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 中企 AI도입 의견조사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제조 공정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AI 지원사업 참여의향은 54.6%로 과반을 넘겼고, 가장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5년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AI도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스마트공장을 구축

한 중소기업체의 47.4%가 “제조 공정에 AI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 응답했다. ‘보통’ 응답을 포함하면 제조 AI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78.5%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이 기초(38.8%)에서 고도화(58.4%)로 높을수록 AI 도입 필요성 인식이 더 높았다. AI 도입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품질관리(33.9%), 생산 최적화(32.3%), 공정 자동화(31.9%) 순으로 생산 현장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AI 도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초기 비용 부담(44.2%), 전문인력 부족(20.5%)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AI 도입 비용과 전문인력 문제가 가장 큰 장벽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응답기업의 54.6%는 정부가 AI 기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AI팩토리) 신설 시, (적극)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 정부의 AI 대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의 AI 도입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72.3%), AI 전문 컨설팅(21.9%)

등 순으로 응답하여 AI 솔루션 도입 비용,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가장 절실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로 가장 만족하는 것은 생산성 증가(42.0%), 작업환경 개선·산업안전 향상(36.1%), 공급망 관리·재고 관리 효율성(25.5%), 품질 향상(25.3%), 원가절감(14.9%) 순이고, 스마트공장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 운영인력 부족(43.8%), 높은 유지관리 비용(25.9%)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 공정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4.5%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58.3%는 제조 공정 데이터를 활용·분석하



▲스마트공장을 갖춘 중소기업 절반은 AI 필요성을 인식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스마트공장 수준이 높을수록,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 수집(82.1%), 활용·분석(78.6%)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조 공정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분석의 어려움으로는 담당자·전문인력의 부족(50.4%), 생산설비 노후화·시스템과 현장의 괴리(28.5%),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부담(2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이갑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ISO 9001:2015
2008년 4월 인증
NBP

ISO 9001
2008년 4월 인증
NBP

ISO 9001
2008년 4월 인증
NBP

INNOCITY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CE
기술혁신 중소기업

RAMS
RAMS

2025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10/25)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1	BANGUN MAJU LESTARI	2025.01.13	50 JT			
2	NOTOS (WOOIN)	2025.01.13	15 JT			
3	TRADEWIND INDONESIA	2025.01.13			3,5 JT	
4	DAEDONG INTERNATIONAL	2025.01.13			3,5 JT	
5	MYUNGSEONG MACHINERY	2025.01.13			3,5 JT	
6	UNGARAN INDAH BUSANA	2025.01.13			3,5 JT	
7	SEYANG ACTIVEWEAR	2025.01.13			3,5 JT	
8	SAMSAM JAYA	2025.01.13			3,5 JT	
9	SEYOUNG INDUSTRY	2025.01.13			3,5 JT	
10	AAB	2025.01.13			3,5 JT	
11	BLUE ROSE NARADO	2025.01.14			3,5 JT	
12	PURNAMA ASIH SUR	2025.01.14			3,5 JT	
13	INKORDAN	2025.01.14			3,5 JT	
14	DREAMWEAR	2025.01.14			3,5 JT	
15	WOOSHIN GARMAMENT	2025.01.15			3,5 JT	
16	TPINC TRADING	2025.01.15		30 JT		
17	KAHOINDAH	2025.01.16			3,5 JT	
18	GAYA INDAH KHARISMA	2025.01.16	15 JT			
19	OROM CONSULTING	2025.01.16	15 JT			
20	DASAN PAN PICIFIC	2025.01.16			3,5 JT	
21	DTL	2025.01.17	15 JT			
22	KEUMKWANG	2025.01.17	15 JT			
23	TUNGGAL INDOTAMA ABADI	2025.01.17	15 JT			
24	BOSUNG	2025.01.17			3,5 JT	
25	DOOSAN CIPTA BUSANA	2025.01.17		30 JT		
26	ZIMMOAH MARINE TRANS	2025.01.17			3,5 JT	
27	ZIBEN INDONESIA	2025.01.17			3,5 JT	
28	JUN H INDONESIA	2025.01.20			3,5 JT	
29	GAYA MAKMUR	2025.01.20			3,5 JT	
30	HESED	2025.01.20	15 JT			
31	PERTIWI INDO MAS	2025.01.20			3,5 JT	
32	L&B INDONESIA	2025.01.20			3,5 JT	
33	INDO BOX	2025.01.20			3,5 JT	
34	DONGJUNG	2025.01.21			3,5 JT	
35	KG FASHION	2025.01.21			3,5 JT	
36	SEJIN GLOBAL	2025.01.21			3,5 JT	
37	YOUNHEUNG MEGASARI	2025.01.22			3,5 JT	
38	CITRA UNGGUL PERKASA	2025.01.22	15 JT			
39	KARYA TRI ABADI	2025.01.23			3,5 JT	
40	WINNER INTRNATIONAL	2025.01.24		30 JT		
41	DELTA MATE MAJALENGKA	2025.01.25			3,5 JT	
42	DELTA MATE INDONESIA	2025.01.25			3,5 JT	
43	UNICORN MACHINE	2025.01.30			3,5 JT	
44	SCENIC INTERNATIONAL	2025.01.30			3,5 JT	
45	KNH GARMINDO JAYA	2025.01.30			3,5 JT	
46	HARINDO	2025.01.30			3,5 JT	
47	MAJUEL	2025.01.30			3,5 JT	
48	SOLVE IT	2025.01.31			3,5 JT	
49	MINU	2025.01.31			3,5 JT	
50	YB APPAREL JAYA	2025.01.31			3,5 JT	
51	HARAPAN GLOBAL	2025.01.31			3,5 JT	
52	JIN MYOUNG	2025.02.03			3,5 JT	
53	PELITA HARAPAN ABADI	2025.02.03			3,5 JT	
54	MANITO	2025.02.06			3,5 JT	
55	HANSAE INDONESIA UTAMA	2025.02.06		30 JT		
56	JM TECH	2025.02.10			3,5 JT	
57	PETRA SAKTI	2025.02.10		30 JT		
58	AMOS INDAH INDONESIA	2025.02.12			3,5 JT	
59	HANSOLL	2025.02.14		30 JT		
60	AAM	2025.02.14			3,5 JT	
61	PERMATA GARMENT	2025.02.14			3,5 JT	
62	RINA JAYA GARMENT	2025.02.14			3,5 JT	
63	DONGYANG NISUSINDO	2025.02.14			3,5 JT	
64	C-SITE TEXPIA	2025.02.17			3,5 JT	
65	SAMKYUNG JAYA	2025.02.18			3,5 JT	
66	LIMANTARA INDAH	2025.02.18			3,5 JT	
67	ING INTERNATIONAL	2025.02.18			3,5 JT	
68	MUARA TUNGGAL	2025.02.18			3,5 JT	
69	KOREA VILENE	2025.02.19			3,5 JT	
70	DAYUP INDO	2025.02.20			3,5 JT	
71	SEOWON	2025.02.24			3,5 JT	
72	DAEHAN GLOBAL	2025.02.24		30 JT		
73	SAMSHING INDONESIA	2025.02.24			3,5 JT	
74	SUKWANG INDONESIA	2025.02.25		30 JT		
75	TAEWON	2025.02.26			3,5 JT	
76	BUSANA INDAH GLOBAL	2025.02.27			3,5 JT	
77	PARAN INTERNATIONAL	2025.03.03			3,5 JT	
78	GOLDEN GARMENTS	2025.03.05			3,5 JT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79	GLOBAL TRIMS CREATOR	2025.03.05			3,5 JT	
80	INKORDAN	2025.03.06		30 JT		
81	ELITE	2025.03.07			3,5 JT	
82	WONEEL MIDAS	2025.03.07			3,5 JT	
83	HANSOL PLEATS	2025.03.07			3,5 JT	
84	GREENLON	2025.03.11			3,5 JT	
85	SUCI PINTAK PLEATS	2025.03.11			3,5 JT	
86	MUTIARA BUSANA INDAH	2025.03.12	15 JT			
87	BLUE SEA GLOBAL	2025.03.12			3,5 JT	
88	KIDO MULIA INDONESIA	2025.03.12			3,5 JT	
89	PESAT GLOBAL	2025.03.14			3,5 JT	
90	YONGJIN	2025.03.18			3,5 JT	
91	SUN SUKA ABADI	2025.03.20			3,5 JT	
92	GUNUNG SALAK SUKABUMI	2025.03.20			3,5 JT	
93	TA GLOBAL	2025.03.24			3,5 JT	
94	WORLD STAR GARMENT	2025.04.28	15 JT			
95	SJ CONSULTING	2025.05.09			3,5 JT	
96	HJ BUSANA INDAH	2025.05.22			3,5 JT	
97	HWASHIN GLOBAL	2025.05.23			3,5 JT	
98	PPF	2025.05.28			3,5 JT	
99	JEFF SOURCING	2025.05.28			3,5 JT	
100	SKYLINE TAEHO INDONESIA	2025.05.30			3,5 JT	
101	DK INTERNATIONAL	2025.06.02			3,5 JT	
102	GREENTEX INDONESIA	2025.06.02			3,5 JT	
103	YURI INDO APPAREL	2025.06.03			3,5 JT	
104	SUNGBO JAYA	2025.06.03			3,5 JT	
105	업체미상	2025.06.09			3,5 JT	
106	BUMA APPAREL INDUSTRY	2025.06.10			3,5 JT	
107	KOTEK INDAH	2025.06.10			3,5 JT	
108	DAESANG INTERNATIONAL	2025.06.12			3,5 JT	
109	BPG	2025.07.01		30 JT		
110	YOUNGHYUN STAR	2025.07.23			3,5 JT	
111	PRESTASI UTAMA NYATA	2025.07.25			3,5 JT	
112	ISTANA GARMINDO	2025.07.30			3,5 JT	
113	JS JAKARTA	2025.07.31		20 JT		
114	INDO HOSE	2025.08.08			3,5 JT	
115	WOORI SUKSES APPERAL	2025.08.11			3,5 JT	
116	GORI GLOBAL	2025.08.11			3,5 JT	
117	MULTI WELL EMBROIDERY	2025.08.11			3,5 JT	
118	APLUS LOGISTIK	2025.08.12			3,5 JT	
119	GLOBAL BUSANA	2025.08.13			3,5 JT	
120	LEADERS WORLD	2025.08.15			3,5 JT	
121	KAILO	2025.08.15			3,5 JT	
122	KYDO INDONESIA	2025.08.20			3,5 JT	
123	TIGA KYUNGSUNG	2025.08.20			3,5 JT	
124	SAMWON ABADI INDONESIA	2025.08.22			3,5 JT	
125	업체미상	2025.08.23			3,5 JT	
126	SIMONE	2025.08.25			3,5 JT	
127	YOUNGSHIN ZIPPER	2025.08.29			3,5 JT	
128	TAEJONG INDONESIA	2025.09.02			3,5 JT	
129	ILJIN INDONESIA	2025.09.04			3,5 JT	
130	YOUMI	2025.09.05			3,5 JT	
131	SHEBA	2025.09.05			3,5 JT	
132	CNC WORLD PRINT	2025.09.05			3,5 JT	
133	SUIN SENTOSA	2025.09.05			3,5 JT	
134	IMPIAN ANUGERA LESTARI	2025.09.09			3,5 JT	
135	STARCAMTEX	2025.09.09			3,5 JT	
136	CRHIG WORLD INDONESIA	2025.09.10			3,5 JT	
137	FITI	2025.09.17			3,5 JT	
138	YUTU LEPORTS JAYA	2025.09.19			3,5 JT	
139	HOKI	2025.09.22			3,5 JT	
140	PERMATA GARMENT	2025.07.28				3 JT
141	INDO HOSE	2025.08.12				5 JT
142	MUTIARA BUSANA INDAH	2025.08.07				10 JT
143	CITRA UNGGUL PERKASA	2025.08.14				20 JT
144	HARAPAN GLOBAL	2025.08.15				5 JT
145	TAEWON INDONESIA	2025.08.19				20 JT
146	YEONHEUNG MEGA SARI	2025.08.19				15 JT
147	ZIBEN INDONESIA	2025.08.21				5 JT
148	MUARA TUNGGAL	2025.08.25				10 JT
149	GAYA MAKMUR	2025.08.25				10 JT
150	KEUMKWANG	2025.08.29				10 JT
151	LIMANTARA INDAH	2025.09.01				6 JT
152	DOOSAN CIPTA BUSANA	2025.09.04				30 JT
153	INDOBOX UTAMA	2025.09.05				3 JT
154	SEJIN GLOBAL	2025.09.05				5 JT
155	ING INTERNATIONAL	2025.09.05				3 JT
156	CLIFF	2025.09.05				5 JT

인니 정부, 연말연시 국내선 항공료 최대 14% 인하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계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연말연시 기간 동안 항공료를 13%~14%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가격 인하는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의 여행을 위한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선 항공편에 적용되며, 할인된 항공권은 10월 22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교통부는 이러한 조치가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간 연결성을 유지하고 대중의 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 부가가치세는 6% 포인트 인하되고, 비행기의 유류할증료

는 2%, 프로펠러 비행기의 경우 20% 인하되며, 승객 요금과 공항 이용료는 모두 50% 인하된다. 이번 항공료 할인 발표는 연말연시 휴가철을 맞아 여행 및 소매업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난 9월

에 발표한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것이다. 올해로 네 번째인 경기 부양책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자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자생식물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 착수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코스맥스인도네시아 R&S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정민경(왼쪽) 코스맥스인도네시아 법인장과 최상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해외생물소재센터 센터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맥스 제공

글로벌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과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신규 기능성 소재 개발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코스맥스는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코스맥스인도네시아 R&S센터에

서 생명연 해외생물소재센터와 ‘자생식물 기반 혁신 소재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기초과학과 상용화 기술을 연결하는 공동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바이오 기반 화장품 연구·제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고유 식물

자원의 생명공학 가치와 친환경 생산 기술을 융합하고, 지속 가능성과 효능을 고루 갖춘 신규 소재를 개발한다.

2011년 설립된 코스맥스인도네시아는 R&S센터 내 향료랩과 센서리랩(Sensory Lab)을 비롯한 현지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할랄 문화권 특화 향수 및 현지 소비자 맞춤형 제형을 개발하는 등 자체 연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정민경 코스맥스인도네시아 법인장은 “현지화 연구와 K바이오 기술을 결합한 혁신 소재 연구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자생식물 기반의 신규 소재 발굴부터 현지 맞춤형 제형 개발까지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크림, 인도네시아에 ‘스탠드오일’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이 24일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스탠드오일’의 인도네시아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자카르타 센트럴파크몰에 오픈했다. 크림이 추진해 온 K-패션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의 첫 성과다.

스탠드오일은 지속 가능한 패션을 지향하는 브랜드로, 합리적인 가격대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크림은 스탠드오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2023년과 2024년 자카르타에서 두 차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모두 목표치를 상회했고, 이를 기반으로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이 성사됐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자카르타 서부의 대형 복합몰인 센트럴파크몰에 자리 잡았다. 패션·F&B·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라이프스타일 몰로, 주말에 대규모 유동 인구가 유입되는 MZ세대 중심 상권이다.

크림은 플래그십 스토어가 글로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 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 최대 상업은행 ‘BCA(Bank Central Asia)’와 함께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

공하는 오픈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해 매장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프리미엄 티 브랜드 ‘공차’와도 협업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소비자 접점을 확대한다.

오픈 기념 한정판 에디션과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스탠드오일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강조한 ‘그랜드 오픈 에디션’을 발매하고, 현장 구매 고객에게 키링을 제공하며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포토존 운영과 인플루언서 초청을 통해 SNS 채널 내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크림은 스탠드오일 인도네시아 총판으로서 유통·마케팅·리테일 운영을 통합 관리하며, 향후 3년 내 플래그십 스토어 2개점을 추가 오픈할 목표다. K-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젝트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스탠드오일 플래그십 스토어는 해외 시장 내 총판, 결제 제휴, 로컬 파트너십을 연결한 크림의 가교 모델을 본격화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마케팅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latum]

뉴발란스, 엠버서더 윈터와 25 F/W 플라잉 구스다운 화보 공개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가 전개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NEW BALANCE)가 엠버서더 윈터와 함께한 2025년 F/W ‘플라잉 구스다운(FLYING GOOSE DOWN)’ 화보를 선공개했다. 이번 화보는 ‘슈퍼 내추럴 윈터(Super Natural Winter)’ 콘셉트

로, 초경량·고기능성 플라잉다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따뜻한 겨울 감성을 담았다. 주력 제품인 ‘W 플라잉 후드형 솜다운’은 글로시 컬러와 크롭 실루엣으로 스타일리시함을 강조했으며, 유러피안 구스 충전재로 보온성과 경량감을 강화했다. 또 ‘UNI 플라잉77 슈퍼라이트

후드형 헤비 구스다운’은 7데니어 초경량 원사와 7CELL 실리콘 코팅 기술을 적용해 다운 삼출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였다. 뉴발란스는 오는 10월 27일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플라잉 77데이(Flying 77 Day)’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구매 고객에게는 한정판 미니 러그 증정, 특별 할인, 77만 마일리지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브랜드 관계자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플라잉 구스다운으로 올겨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써스데이 아일랜드, 경계 허문 스타일의 진화
써스데이 아일랜드가 뮤즈 키키와 함께한 25FW 캠페인을 선보인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에이지리스 확장성은 이번 시즌에서 더욱 강화되어 연령과 스타일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키키의 젠지 세대적 이미지와 써스데이 아일랜드만의 감성을 결합해, 일상에서도 판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화보를 선보인다.

주요브랜드 2025 광고촬영스토리 ...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커버넛, 겨울의 온기를 입은 스트리트 무드

커버넛이 겨울 시즌을 맞아 ‘Hi CMC’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 배우 추영우, 모델 최윤지가 참여해 각자의 개성을 담은 겨울 일상을 선보인다. 커버넛의 오랜 고민이 담긴 다운 점퍼 컬렉션은 차가운 겨울의 공기 속, 커버넛의 씨빅 다운점퍼와 함께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겨울 룩을 완성한다.



마르디 메크르디, 핑크 리본으로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마르디 메크르디가 ‘세계 유방암의 날’을 맞아 핑크 테마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아키바 리에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핑크 컬러를 메인으로 이뤄졌다. 아키바 리에와 아이들은 특유의 밝고 사랑스러운 무드로 핑크색 컬러가 돋보이는 ‘플라워 마르디’를 착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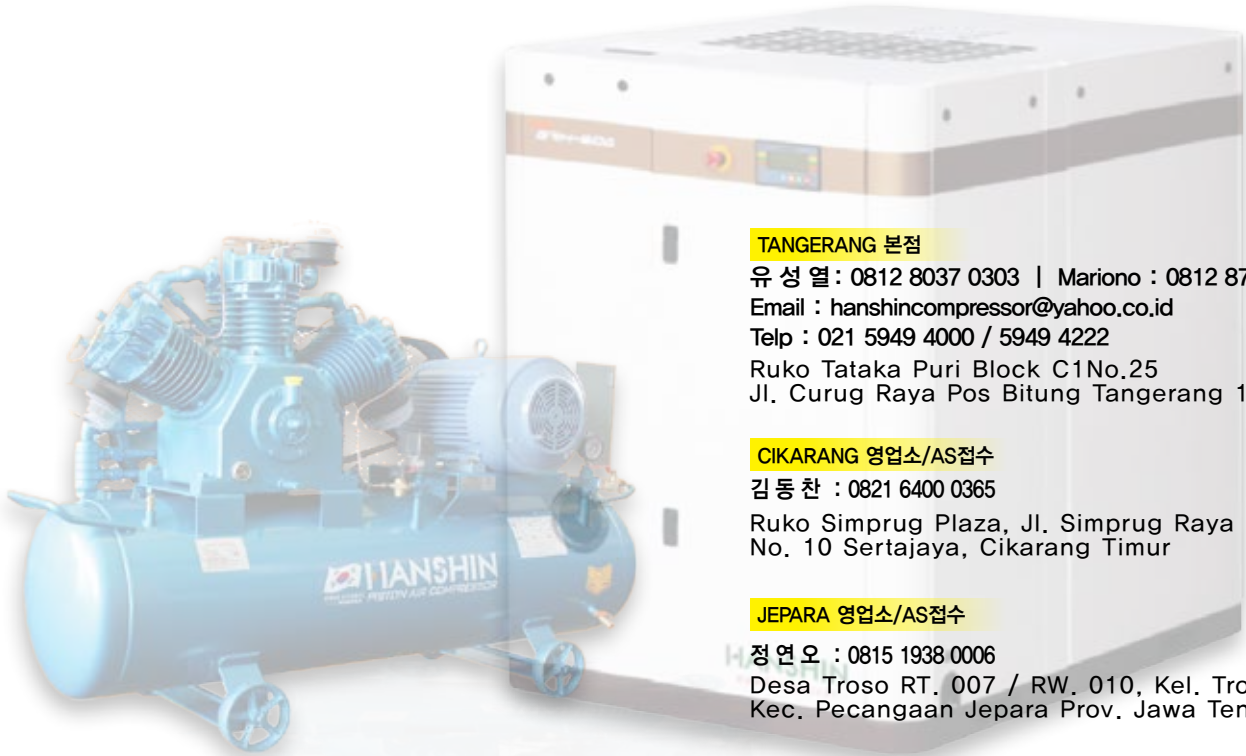


로라로라, 장원영과 함께한 따뜻한 겨울 클래식

로라로라가 장원영과 함께한 25F/W 2차 라인업과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깊어가는 겨울과 설레는 홀리데이의 설레고 따뜻한 무드를 담았다. 또한 다양한 겨울 시즌 패턴과 헤어리한 소재감의 라인을 선보였다. 장원영은 트렌디하면서도 도회적인 퍼 아웃핏으로 특유의 꾸밈없는 사랑스러움을 담아냈다.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